

# ‘지각철’ KTX호남선, 승객 편의·안전 모두 놓쳤다

20년 192건·21년 238건·22년 895건  
영업·차량·선로·신호·운전 문제 등  
“인력·예산 확대 등 대책 마련 절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철도(KTX) 지연 운행이 해마다 증가하며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철도 사고가 늘면서 지연 운행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늘어 ‘지각철’(지각+고속철도)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KTX편이 적은 광주·전남지역을 다니는 호남·전라선 지연도 해마다 늘어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열차 지연 현황’에 따르면 KTX 호남선 지연 건수는 2020년 192건, 2021년 238건에서 2022년 895건으로 급증했다.

전남지역의 곡성·구례·순천·여수 등을 다니는 KTX 전라선 지연도 2020년 139건, 2021년 162건, 2022년 53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KTX를 포함한 새마을호·무궁화호의 열차 지연 건수는 3년새 호남선 2967건·전라선 2110건을 기록했다.

전국 KTX 지연 역시 2020년 1533건, 2021년 1918건에서 지난해 5707건으로 급증했다. 지연 원인은 영업·차량·선로·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철도노조원들이 27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철도하나로 광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호·운전 문제, 기타 등이다. 지난해 KTX 지연 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해 철도 사고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철도 사고가 나면 사고 구간과 사고 위험 구간의 선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해 다른 열차가 서행 운전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철도 사고는 2012년 222건에서

10년 뒤인 2021년 4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6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열차 지연 건수 집계에 풍수나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지연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해마다 증가하는 KTX 지연이 승객들의 편의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철저한 관리 등으로 지연 운

행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역시 ‘지각철’은 여전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에서 서울로 향하는 수도권 전철 경의선 철도에서는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마산행 KTX 승객 175명이 예비 차량으로 환승하는 등 1시간 넘게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승객들은 예정보다 20분

늦게 마산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고양 수색 차량기지에서 서울 역으로 이동해 출발하는 일부 경부·호남선 KTX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안내 부실 문제도 나왔다. 잦은 지각 운행과 사고에도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 전광판, 안내 방송 등이 지연 시간을 다르게 알려 열차를 놓치는 승객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승객의 발’이 돼야 할 KTX 등 고속열차가 승객들의 편의를 보장하지 못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철민 의원은 “사고·지연 운행, 안내 부실 원인은 인력·운영자원 부족과 같은 뿌리에서 비롯됐다”며 “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과 관리 인력 증원·운영 예산 확대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정된 철도 용량에 수요가 늘면서 KTX 지연 운행이 꾸준히 자연 증가했다”며 “경영상의 불안정과 리스크가 폭발한 결과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이어 “내년이면 고속철도가 20주년을 맞는다. KTX가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지만 운영 체계, 경영·인력 구조 등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 전 시대와 맞는 고속철도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 광주시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선정

산자부 공모... 3년간 국비 95억  
융복합의료제품 지원체계 구축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95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이 보유한 혁신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전남·충남도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95억2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52억5000만원을 투입, 융복합의료제품의 인허가 중심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59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광주시는 최신 디지털기술인 가상현실(VR) 기술을 의료산업에 적용해 시뮬레이션 지원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가 총괄 주관하고, 광주테크노파크·전남대학교병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충남도는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이 참여한다.

융복합의료산업은 바이오기술·정보기술·나노기술·로봇기술·의료기술 등 혁신

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기 중심의 산업을 의미한다.

통상 기존 의료제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개념의 제품을 복합 또는 조합된 경우를 융복합의료제품으로 지칭한다.

제품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제품 제작 △소재·공정개발 지원 △제품·공정 시뮬레이션 △제품고도화 지원 △제품3D스캔 지원 △시험·평가·인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사업단 내 자체수행으로 제품 출시를 단축시키고,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선점을 주도한다.

그 동안 영세 중소기업은 인허가·마케

팅 등의 어려움으로 시제품 완성 뒤 제품 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광주·전남·충남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 인허가 중심의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융복합의료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수혜기업의 국내 매출 증가 157억7000만원, 신규고용 90여명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승 광주시인공지능산업국장은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융복합의료제품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XPERON

엑스페론

Yes, it's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